

## 어은동지명유래에 대한 연구

리 호

어은동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평양부 룡악방 서리와 동남리지역이었고 1914년부터는 평안남도 대동군 룡악면 서리와 동남리지역이었다.

1952년 12월에 면을 없애고 대동군의 일부 지역을 갈라 순안군을 내올 때 대동군 룡악면 서리와 동남리를 합쳐 순안군 서리로 개편하였다.

서리는 룡악방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지명이었다.

1959년 9월 평양시 대성구역 일부 지역과 평안남도 순안군의 일부 지역을 합쳐 평양시 룡성구역을 내올 때 서리는 룡성구역 서리로 되었다.

서리는 순안군동쪽, 후에는 룡성구역북쪽의 리로 되었기때문에 서쪽마을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맞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1960년 10월 룡성구역 서리를 어은동으로 고쳤다.

어은동이라는 지명이 처음 보이는 공식자료는 1918년에 작성된 1 : 50 000 지형도이다.[3] 지도에는 당시 이 고장의 행정지명이었던 西里(서녁 서, 마을 리)가 표기되어있고 그 아래에 御恩洞(모실 어, 은혜 은, 골 동)이라는 지명이 괄호안에 표기되어있다.

이것은 어은동이 당시 공식행정지명은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이 고장에 대한 관습적인 지명으로 불리워왔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어은동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두가지 내용으로 전해지고있다.

그 하나는 어은동의 한자표기를 御隱洞(모실 어, 숨을 은, 골 동)으로 하고 그 유래를 《옛날 어떤 왕이 은신해있던 곳이라 하여 어은동이라고 한다.》[1]고 한것이다. 현재 이 고장 사람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은동의 유래를 그렇게 이해하고있다.

다른 하나는 《늘어진 골짜기에 생긴 마을이라하여 어은동이라고 한다.》는것이다.[2]

지명들가운데 두가지 유래를 가지고있는 지명들이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들에 공통점이 있거나 련관성이 있는것이 일반적이다.

실례로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지명유래의 하나는 고구려왕궁인 안학궁이 있던 곳이라는데서 유래된 지명인데 《안학궁》은 원래 수도의 제일 안쪽에 자리잡고있었다고 하여 《아낙궁》이라고 하던것이 발음상 편리하게 점차 《안학궁》으로 와전되었다는것이다.

다른 하나의 유래 역시 고구려왕궁인 안학궁이 있던 곳이라는데서 유래된 지명인데 원래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던 궁전이라 하여 《안락궁》이라 하던것이 발음상 편리하게 《안학궁》으로 와전되었다는것이다.

이처럼 안학동의 유래는 두가지이지만 다같이 고구려왕궁과 관련된 류사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어은동에 대한 두가지 지명유래가운데서 하나는 사회력사와 관련된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지리적특징과 관련된것으로서 그 분야가 완전히 다르고 내용의 공통점이나 련관성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지명들은 해당 지리적대상의 자연적특징이나 거기에 깃들어있는 사회력사적특징으로 부터 명명되므로 어은동지명에 대한 두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유래의 진실 여부를 알수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첫번째 내용이 틀리고 두번째 내용이 맞는다.

그 근거는 우선 우리 나라 옛문헌들의 그 어느 갈피에도 이곳에 왕이 피신해있었다는 기록이 없는것이다. 그리고 유래내용에 어느 시기 어떤 사건으로 어느 왕이 은신해있었는가 하는것이 없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는것이다.

또한 어은동에 수많은 작은 골짜기들과 산, 고개들이 있지만 그 지명들가운데 왕과 결부되어 유래된것이 하나도 없는것을 비롯하여 이 고장에 왕의 생활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전해지는것이 없는것이다. 이밖에 어은동일대에서 왕과 관련한 유적유물이 알려졌거나 발견된것이 없는것도 그 근거로 된다.

그러나 늘어진 골짜기에 생긴 마을이어서 어은동이라고 한다는 두번째 유래내용은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우선 유래내용에 이 고장의 지형조건의 특징이 옳게 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어은동의 북쪽에는 룡골산(401m)을 비롯하여 청룡산줄기를 이루는 해발 400m이상의 산들이 솟아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청룡산줄기에서 뻗어내린 5km 남짓한 지맥을 따라 300~100m 정도의 산들이 솟아있으며 그가운데는 남쪽으로 열려진 긴 골짜기가 있다.

산줄기들의 북쪽은 평성시, 서쪽은 순안구역, 동쪽은 룡성구역 립원동이며 남쪽의 골짜기밖은 룡성구역 중이동이다.

어은동은 대부분 지역이 해발높이 70~400m 되는 언덕과 산들의 경사지이고 그가운데 북-남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골짜기바닥은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다. 북쪽의 골짜기 막바지바닥의 해발높이는 약 100m 정도이고 그로부터 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골짜기 입구부근의 해발높이는 40m 남짓하다.

이것은 골짜기가 1/60정도의 구배를 가지고 완만하게 늘어져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늘어진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어서 어은동이라고 한다는 지명유래 내용과 일치한다.

늘어진 골짜기에 생긴 마을이어서 어은동이라고 한다는 유래내용이 옳다는 근거는 또한 《어은동》이 《느린 골》이라는 고유한 조선말지명의 리두식표기라는것이다.

리두식표기란 고유조선말을 그 뜻이나 음(소리)이 통하는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고유조선말을 한자로 표기하는것은 삼국시기이후 국가적시책이였고 사회적풍조로 되었기때문에 천수백년간 많은 고유조선말지명들이 리두식으로 고쳐졌다.

《어은동》이 《느린 골》이라는 고유조선말지명의 리두식표기라는것은 《어》로 발음되는 여러개의 한자들가운데 늘어졌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於(늘 어)자밖에 없는것을 보고 알수 있다. 그러므로 《어은동》에서 늘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는 於(늘 어)자가 틀림없다.

《동》은 의심할바 없이 골짜기를 나타내는 洞(골 동)자이다.

그리고 《은》은 《느리다》는 의미를 가진 於(늘 어)자를 규정어형으로 만들어 洞(골 동)자를 규정한것으로서 한자의 뜻에는 관계없이 《은》으로 발음되는 임의의 한자를 쓴것이다.

이처럼 《어은동》이란 느린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진 고유조선말지명인 《느린 골》에 대한 리두식표기를 한자음으로 읽은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하여 《어은동》은 길게 늘어진 골짜기 또는 거기에 있는 마을이라는데서 유래된 지명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떤 임금이 은신해있던 곳이여서 어은동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지명유래가 어떻게 생겨났겠는가?

20세기전까지 어은동과 같은 작은 산골마을지명들까지 표기한 지도와 문헌들이 없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은동을 표기한 한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입말로만 불러왔다. 그 과정에 자기 고장을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보편적인 감정으로부터 어은동의 《어》를 임금과 관련한 御(모실 어)자로 생각하면서 그 유래를 왕과 련관시켜 말하기 시작한것이 점차 퍼져 20세기에 작성편찬된 지도와 지명사전에까지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박태훈 등; 조선지명사전 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36, 1996.
- [2] 정순기 등; 고장이름사전(평양시, 남포시),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14, 주체90(2001).
- [3] 朝鮮地圖集成(平壤北部), 學生士, 75~80, 1991.

주체108(2019)년 4월 5일 원고접수

## Toponym Origin of Oundong

*Ri Ho*

In this paper I ascertained geographically, historically and philologically toponym origin of Oundong, Ryongsong district, Pyongyang City.

Key words: toponym, origin, valley